

2019 신년메세지 I.

GO 2819!

[마태복음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 내 백성을 보내라

[출애굽기 5:1]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키야 한다' 하셨습니다."

~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desert.' (NIV)

2019년 주제가 "GO 2819"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28:19-20을 대위임 'Great Commission'이라고 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제자들의 삶이란 자기성찰을 하는 수도사의 삶이 아니다. 성경에서 보는 제자들의 삶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마태복음 28장에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는 삶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향방없는 삶이 아닌 목적이 분명한 삶을 말한다.

그러므로 '대위임'에 대한 성도와 교회의 반응은 취사선택이 아니다. '사명'이다. 임무를 완수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는 이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존재한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이다. 이 일의 완수를 위한 첫 명령은 아주 분명하다. '가라'이다.

인생은 어디론가 가는 것이다. 인생은 '시간의 흔적'을 말한다. 시간의 속성 자체가 '흘러감'이다. 문제는 가는 것은 분명한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모른다. 두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다면 아주 퀄리티 있는 시간을 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준비할 수 있다.

성경에 보니 두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이다.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의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이들의 삶에는 희망이 없었다. 희망이 없으니 계획도 할 수 없다. 종의 되물림이 세대를 통해 되물림 되었다. 삶은 고통 그 자체이다. 생각과 감정과 행동이 묶여 있었다. 자유가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시기로 결정하신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앞에 세워서 선포하게 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가게하라. Let my people go)" 이 선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묶임과, 저주와,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라는 것이다.

(1) 내 백성의 정의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세상)의 저주로부터 묶임이 없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즉 다스리는 사람들은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백성을 언급하시면서 그 정체성을 '묶여있는 사람'이 아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셨다.

(2) 내 백성은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절기)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다. 오늘 현대인들의 삶을 묶는 가장 강력한 속박이 바로 ‘시간’이다. 자본주의 사회안에서 돈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 누가 돈을 벌 수 있는가? 시간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시간은 사람의 가치를 환산해 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가 된다.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라. 허비하는 시간이 없다. 분초 단위로 스케줄이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시간은 돈이 된다. 유명 인사와의 저녁식사 한 번이 상품화 되는 경우가 있다.

‘시간의 주인이 될 것인가? 시간의 노예가 될 것인가?’ 의 문제이다. 실제로 예전 노예들을 보라. ‘자기 시간’이 없다. 노예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없다. 노예의 주인들이 노예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롭게 가게해서 내 절기를 지키게 하라는 것은 실제로 노예로 있었던 그들의 시간을 찾아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이다.

세상의 시간은 결국 ‘사람’들을 묶는다. 긴박하게 한다(경쟁사회). 쉴 수 없다. 무조건 달린다. 어디로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모르고 무조건 달렸더니 결국 향방을 잃었다. 이런 삶에 ‘목적과 비전’이 있을리 없다. 결국 비전이 없는 백성, 목적이 없는 백성은 그 끝이 허망함이다.

2.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 하신 이유

(1)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 묶임을 풀고 자유를 주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신다. 묶여있는 모든 곳을 보라. 하나님이 묶여있는 모든 곳을 풀어내시는 이유는 단 하나이다. 단 한명이라도 그 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을 당한다면, 하나님은 ‘국가’를 흔들어서라도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ㄱ) 내면의 묶임을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오랜 잘못된 습관, 중독, 내면의 아픔, 상처로 인한 묶임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ㄴ) 가정의 묶임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다.

특히 오래된 가정의 묶임을 풀어내실 것이다.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의 문제의 벽들을 허무실 것이다. 관계, 가계 빛 등 모든 영역에서 일하실 것이다.

ㄷ) 교회의 묶임

특히,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실 것이다.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선택받은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그리고 성도에 대한 구분을 분명하게 하실 것이다.

(2)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는 한 해 - 중간지대는 없다. 확연한 구분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 17:5-8]

5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6 그는 황야에서 자라는 가시덤불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소금기가 많아서 사람이 살 수도 없는 땅, 메마른 사막에서 살게 될 것이다."

7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8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진리와 거짓, 양과 염소의 구분이 분명하듯이 '진짜'는 더 진짜(Real)이 되는 시간이 되고 '거짓과 가짜'는 더 분명해 질 것이다. 진짜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가라'고 명하시며 '제자'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제자'는 군중과 다르다. 다른 삶이다. 분명한 삶이다. 사도행전의 '제자'들에게 임한 하늘의 능력을 보라. 예수님 이상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 능력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가 되었다. 진짜와 가짜의 구분이 명확해 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을 복이 눈으로 드러나는 시간이 될 것이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풍성하다'는 것이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 시편 1편). 그 풍성함이 배가 될 것이다.

3. Just GO!

왜 가야 하는가? '보상'이다. 우리가 가야할 곳이 어디인가? 분명하다. 마지막 '천국'이다. 천국의 핵심은 무엇인가? 면류관이다. 보상이다. 충성되고 수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다 (주인의 비유). 그러므로 기쁘게 달려야 한다.

가나안에 이미 들어온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씀-언약' 붙들고 이제 달려야 한다. 여리고는 장벽이 아니라 보상이자 가면 된다. 광야에서 보지 못했던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볼 것이다. 믿음으로 나아가라. 담대하게 나아가라. 단순하게 나아가라. 예와 아멘으로 나아가라.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제자들이 경험한 엄청난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자. 안주하고 정체되면 이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한 번 뿐인 인생'이다. 단순하게 달리자. 이제 그 실재를 눈으로 볼 것이다.

- (1) 예와 아멘의 단순한 신앙
- (2) 약속을 붙잡는 신앙
- (3) 상급의 기쁨을 맛보는 신앙

'마태복음 28:19-20' 의 약속을 붙잡고 달리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염려하지 말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